



후배사랑, 모교 야식지원

**미대동창회가
야작하는 후배님들을
지원합니다**

간식 무료 제공
매회 컵라면 2 + 구운 계란 2

미술대학
50동 311호
(동창회 사무국)

5월 23(목), 28(화), 30(목)
6월 4(화), 11(화) 10~17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졸업전시나 학기 말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간작업을 하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야식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야식사업은 2019년부터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실시해 온 모교지원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본회 부회장 인필연(80조소) 동문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3주간 화요일 목요일에 본회 서울대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컵라면과 구운계란을 제공한다. 첫날 오전부터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은 다양한 컵라면을 보고 즐거

워했으며, 소문이 퍼지면서 준비된 간식이 빠르게 소진됐다. 이번 야식사업은 에너지바가 메뉴에서 빠진 대신 라면과 구운계란을 매번 두 개씩 제공하고 있다. 올해 모교 학생회가 학내에 에너지바 자판기를 설치한 것을 고려한 메뉴 구성이다. 학생회회장 윤솔하(22동양)는 "간식 행사가 열리는 날에 미대를



돌아다니다보면 라면을 들고 과방을 향하는 학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해당 행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지원해주신 미술대학 동창회 측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고 했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예나(22서양) 학생은 "작업을 하다보



면 급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중간중간 간식이 필요한데, 동창회에서 간식지원을 지원해주신 덕에 시간도 아끼고 힘도 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윤경원(19동양) 학생은 끼니를 급하게 때워야 할 때가 있는데 받은 라면으로 식사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조민경(23디자인) 학생은 "간식 행사 때마다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면을 두 개나 주네요. 계란까지 최고~"라고 했으며, 김지현(23디자인) 학생은 "가난하고 배고픈 저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회 영원해주세요"라고 했다. 1학년 박소은(24동양) 학생은 "학교에 입학하고 야작지원 사업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앞으로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했고, 신채원(24공예) 학생은 "신기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감사하다"라며 웃었다. 옥윤찬(24동양) 학생은 "작업할 일이 많은데 시간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고 김민서(24동양) 학생은 "야작하면서 배고플 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간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4학년 학생들은 "그동안 여러 번 야작할 때 간식을 제공해주어서 감사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다.

소확행아트컬렉션 성황리 개최



본회가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와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한전갤러리(1층 2전시실)에서 장애청소년 후원을 위한 '2024 소확행아트컬렉션'을 개최했다. 총 62명의 미대동문 및 서울대 동문들의 작품 또는 소장품 193점이 출품된 이번 전시는 후원자인 만큼 특별할인 된 작품들과 소액투자로 소장이 가능한 작품들도 많이 출품되어 전시홍보물만 보고도 전화로 사전구매하거나 처음으로 오픈런이 있는 등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특히 가족과 전시장을 방문한 안한열(99법학부) 동문이 자녀들에게 방에 걸 그림을 선택하게 하자

안소이, 안정후 남매(▲사진)는 주저없이 원하는 그림을 각자 고르고 기뻐하는 흐뭇한 광경도 연출됐다.



2024 S-아트부스쇼

본회는 (사)에스아트플랫폼 주관하에 서울 서초동 한전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2024 S-아트부스쇼'를 개최했다. 이번 부스개인전에는 이해민(74응미), 이광택(80회화), 채현교(90서양), 박도현(16디자인), 김명은(17동양), 김정아(17서양), 이해리(17서양) 동문(▲사진) 등 7명이 참가했으며 총 149점이 출품됐다. '그리움'을 그리는 화가 이해민 작가는 사랑스럽고 수줍은 듯한 아이들의 모습, 귀여운 동물을 통해 그리움을 표현했고 이광택 작가는 자연이 중심이 되고 인물과 집은 작게 그려지는 작품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지 않고 벗어나 사는 동양의 자연관을 표현했다. 바다 속 풍경을 30여 년 넘게 작업하고 있는 채현교 작가는 생명이 넘치는 생태계를 조화롭게 시각화한 환상적 풍경을 9M에 이르는 대형작품 3점 등을 통해 선보였다. 물의 풍경을 그리는 박도현 작가는 자신이 직접



본 물이 있는 풍경을 기록하고, 다양한 심상들을 물의 속성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보여 줬다. 자취와 잔상을 기록하는 김정아 작가는 감정의 잔여물, 소망의 잔상, 공간에 남은 사람의 온기, 가물가물한 기억, 쓰이지 못한 이야기, 언어의 잔상 등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는 과정들을 작품에 담았다. 평범한 것들, 그중 자연을 소재로 그리는 김명은 작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소한 것에 대한 애정을 담은 평면과 입체 작품을 보여줬다. 그림자의 형상을 그리는 이해리 작가는 차갑지만 햇살을 떠올리게 하는 푸른 색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본회가 4년간의 자료조사로 발간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에는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3년도 신입동문까지 시각예술은 물론, 정치, 경제, 교육, 음악 등 모든 분야의 3,000여명의 실적이 수록됐으며 한정판으로 제작됐다. 도록은 소진시까지 회원할인을 적용해 구매가능하다.(단 평생회비나 연회비 납부회원)

회장동정



의정부 인사이드에서 강연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장) 회장이 지난 4월 23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의정부 CRC의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의정부 인사이드의 강사로 초빙돼 세계 디자인사업을 견인한 밀라노의 성공 공식을 사례로 들며 강연을 했다. 권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정부 CRC에 국가디자인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의정부를 넘어 경기 북부의 소재 산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다"며 "경기북부가 디자인 핵심 전진기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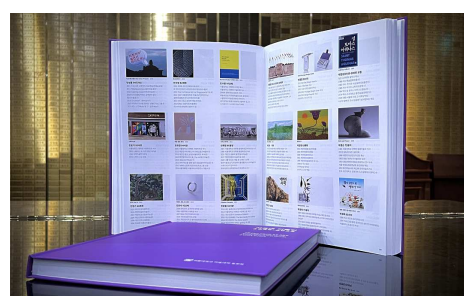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장) 회장이 국토교통부와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했다. 콜로키움에서는 권회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7기 위원회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술아카데미 여름방학특강



본회는 S-미술아카데미의 봄학기(15주) 미술실기강좌가 오는 6월 말에 마치게 됨에 따라, 9월에 시작되는 가을 학기전인 7~8월 8주간 여름방학 특강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번 특강 역시 교육 수준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좌별 15명 이내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반인 대상 교육 경력이 많은 동문 강사들로 진행되는 이번 방학특강은 '태블릿PC 드로잉(강사 이필두)', '사군자·문인화(강사 변영혜)', '그림책 워크샵(강사 광영권)' 강좌를 지속하고 기초소묘, 드로잉, 자유크로키 등 강좌를 더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S-미술아카데미는 지난 3월 종료 인사동에 위치한 백악미술관에 실기강의실을 마련했다. (수강문의 010-8605-8065)

'서울대미술인' 회원할인



본회가 4년간의 자료조사로 발간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에는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3년도 신입동문까지 시각예술은 물론, 정치, 경제, 교육, 음악 등 모든 분야의 3,000여명의 실적이 수록됐으며 한정판으로 제작됐다. 도록은 소진시까지 회원할인을 적용해 구매가능하다.(단 평생회비나 연회비 납부회원)

- 구매신청 :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 성명, 학번, 학과 명시)
- 회원할인 : 5만원(정가 15만원)
-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술대동창회)

모교소식



1학기 학과별 여행

모교(학장 정의철)는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학과별 MT 및 스케치여행을 다녀왔다. 동양화과는 태안으로 스케치여행을 다녀 왔고, 서양화과(▲사진)는 경기도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춘계교외교육을 진행했다. 공예과는 도자공예전공과 금속공예전공이 따로 MT를 떠났다. 도자공예전공은 양구를, 금속전공은 강릉을 방문했다. 금속공예전공은 이번에 유일하게 2박3일(25~27일) 일정을 소화한 전공이다. 조소과는 1박2일(27일~28일) 을왕리로 여행을 다녀왔다. 한편 여행을 마친 후에는 모교 50동에서 여행 관련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

5월 '졸업하면 뭐할래?'

모교 진로특강 시리즈 '졸업하면 뭐할래?' 5월 강의를 지난 5월 29일 ZOOM 온라인 화상 미팅 플랫폼에서 개최되었다. 모교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



두 명을 초청했다. 한예종 미술이론과 김연재(위사진) 교수의 강의 '시간과 마음 다스리기: 미술계 졸업생들의 진로설정'은 미술계 전공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실질적 차원의 조건들을 확인해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김교수는 '다만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결과를 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내면의 스트레스 및 불안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였다'고 강의를 소개했다. 아그라파 소사이어티 멤버이자 前 '말하는 미술' 진행자 김진주(아래사진) 작가는 강의 '미술을 지속하는 여러 가능성'에서 "전시나 작품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미술을 계속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만들어가는 작업과 그 활동의 경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초청 작가 특강 '싱코피 syncope'



모교 조소과는 지난 5월 21일 모교 74동 오디토리움에서 전소정(01조소)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 '싱코피 syncope'를 개최했다. 전소정 작가는 영상, 설치, 출판 등을 통해 역사와 현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환기시키는 비선형적 시공간을 창조한다. 특히 그는 동시대의 속도감 속에서 누락된 인물들의 목소리, 풍경, 시간에 주목하여 자신의 경험과 교차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국의 디아스포라, 이동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는 변신과 변형의 유목적 정체성, 로컬리티나 세계화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역사쓰기, SF 퓨처리즘, 그리고 가속을 미학적으로 전회시키는 기술과 속

도의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전소정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2023), 리움미술관(2022), 샤르자 아트 파운데이션(2022)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형연구소,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업무협약 체결

모교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센터장 신하순 모교 동양화과 학과장, 이하 미술품보존연구센터)와 모교 동양화과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과 지난 5월 22일 모교 송광자 미술도서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전통한지의 예술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세부내용은 전통한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한지활용 관련 교육 전시 기획 등 프로그램 공동추진,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전시·행사 콘텐츠 제공 및 활용,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당과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한지의 보존과 연구, 지속적인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등 우수한 전주한지로 미술품을 보존하는 데 있어 기능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장기적 학문 연계를 도모할 기 대한다고 밝혔다.

우석갤러리

유동적 모래알갱이 이호경 개인전



지난 5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호경(17동양) 동문의 개인전 '유동적 모래알갱이'가 우석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동문은 "언제 붙어 닳칠지 모를 존재 앞에 연대하는 연약한 텍스처"로서의 모래알갱이, 파도 앞 사라진 모래성에 동질감을 느낀다. '유동적 모래 알갱이'는 예측불가능하면서도 지속적인 불안 앞에 놓인 존재로, 불확실성의 공간 안에 놓인 '나'라는 존재를 은유한다. 그 앞의 '바다'는 불확실성의 공간이다. 이동문은 본인의 시청각 경험뿐만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를 매개로 바다를 바라본다. 인위적이거나 기계적 감각들은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이나 조약돌이 가진 형태 너머 본원적 모습을 미루어보고자 하는 접근 경로다.

화살표 위의 핀포인트 강호준 박소은 안수빈 단체전



강호준, 박소은(14동양), 안수빈(21동양) 동문의 단체전 '화살표 위의 핀포인트'가 지난 5월 6일부터 18일까지 우석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전시 제목 '화살표 위의 핀포인트'는 각자의 화살표를 따라 걷던 세 사람이 마주하여 창조되는 새로운 순간을 가리킨다. 이들은 각자 핀포인트로 고정한 과거와 화살표의 축끝에 선 현재의 격차를 포착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이러한 방식은 전시에서 '상기하기'라는 주제로 묶여 제시된다. 이들 작업은 유사한 '상기'의 과정을 거치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본 전시는 이러한 방향을 드러냄으로써 관람자에게 새로운 방식의 '상기하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대소식



학부대학 릴레이포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지난 5월 14일에 열린 학부대학 제3차 릴레이 포럼에 참석했다. 제2차 포럼은 "학부교육 혁신,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박준영 총학생회 직무대행 등 4명의 학생이 발제를 준비해 진행됐다. 학생 발표자는 학부 교육 혁신과 학생 사회와의 소통, 변혁적 역량 기반 미래교양 교육 디자인, 교양 과학 교과목의 교육 수요와 학제성 반영, 자유전공학부 교육의 융합적 가치와 학부대학으로의 적용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학생들과 종합 토론 시간을 통해 학부교육 혁신에 관한 논의를 벌였다. 유홍림 총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학교 1학년 교육은 학생 진로,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학부대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대 학생, 교직원들이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봄축제 'Day Off'



서울대학교 2024 봄축제 'Day Off'가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대학교 잔디광장 및 풍산마당에서 개최됐다. 축제가 열리는 3일간 잔디광장에는 미니 게임과 푸드 홀리데이·아트 홀리데이 부스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부스 및 행사 체험 후 받을 수 있는 버튼뱃지를 전부 모으면 하키복 금속뱃지를 증정하는 '뱃지 모으리오'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잔디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7~8일 이틀간 '사운드 오브 뮤직'(1일차 보컬&밴드, 2일차 힙합&댄스), '캠프파이어 플레이리스트'(어쿠스틱 밴드 공연) 무대를 관람할 수 있었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폐막제는 풍산마당에서 개최됐다. 학내 동아리 공연으로 막을 올린 폐막제는 초청가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래퍼 창모와 밴드 잔나비가 공연을 선보였다. 축제의 메인 스폰서였던 '말해보카'는 잔디광장에 말해보카 존을 설치하여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문화다양성 주간



서울대학교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4 서울대학교 문화다양성 주간 '다양한 세계, 다양한 우리'를 개최했다.(공동주관: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문화예술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번 문화다양성 주간의 시작을 알린 것은 잔디광장에 설치된 대형 LED 디스플레이다.

이곳에서 문화다양성 콘텐츠 상영회 '세계의 문화'가 20일 11시에 상영을 개시하여 문화다양성 주간 내내 이어졌다. 아프리카,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국의 음악 공연을 올린 '미니 콘서트' 또한 잔디광장에서 진행되어 서울대 구성원들에게 다양성 주간을 알렸다. 이외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포럼, 초청 강연 등이 열렸다. 한편 중앙도서관에서도 문화다양성 주간에 맞춰 다양성위원회 추천 도서·영화전 '다양성을 읽다&보다'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오는 6월 14일까지 이어진다.

파워플랜트 '다이얼로그 Dialogue' 두 번째 전시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은 파워플랜트(68동)에서 지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기획 전시 시리즈 '다이얼로그 Dialogue'의 두 번째 전시 '다이얼로그 02: SYNAPSE'를 개최했다. 기획 전시 시리즈 '다이얼로그'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아티스트/스튜디오/기업이 만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모호하지만 새로운 영역에 대해 탐구하고, 공유하는 가치와 질문을 발견하는 과정을 목표로 한다. '다이얼로그 02: SYNAPSE'는 일본 교토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 미술가 아키히토 오쿠나카와 사운드 디자이너 백승렬의 협업으로 공기와 소리의 교차 감각을 극대화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이다. 오쿠나카의 20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인플래터블(공기주입식 풍선) 작품과 그 안에 설치된 물베개는 내부로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바람과 공기, 물과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요소를 감각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 공간 전체와 지름 6미터의 돔에 설치된 실감음향시스템(이머시브 사운드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백승렬의 음악 작업은 오쿠나카의 설치물과 때로는 반응하고 때로는 대립하며 관객들에게 평면적 청각 경험이 아닌 새로운 촉지적 감각의 경험을 선사한다.

'알렉산더 테크닉' 교육



서울대학교는 지난 5월 9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대학생활문화원 521호(63동 학생회관 5층)에서 교육 프로그램 '편안한 마음과 몸을 위한 바른 자세'를 개최한다. 본 프로그램은 6회기에 걸친 대면 강의로 '의식적인 나의 사용'을 통한 몸 사용법을 연습하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교육한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앉고, 서고, 숨쉬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할 때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통해 긴장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백희숙 한국알렉산더테크닉협회 소속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은 6회기의 심화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된다. 본 교육은 교수, 교직원,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등의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15명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선정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만나는 예술의 전당



서울대중앙도서관(관장=장덕진)이 지난 5월 16일과 17일 관정관 6층 정인식 소극장에서 예술의 전당 우수 작품 상영회 '중앙도서관에서 만나는 예술의 전당' 5월 행사를 개최했다. 5월 상영작은 '호두까기 인형(발레)'(16일)과 '종묘제례악(궁중예술)'(17일)으로,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상영되었다. 중앙도서관은 예술의 전당의 우수한 공연을 상영하여 학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상영회 기획의도를 밝혔다. 본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선착순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총동창회소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을 열었다. 이날 주호영, 조배숙, 권영세 동문 등 29명의 당선 동문이 참석해 좋은 정치를 위해 화합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동문 화합의 장이자 정계에 만연한 반목과 갈등을 해결하는 작은 실마리가 된 뜻깊은 행사였다. 지난 4월 10일 치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107명 동문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합해 53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해 48명이며, 조국혁신당 5명, 새로운 미래 1명 등이다. 전체 의석은 야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동문 당선인은 여야에 비교적 고루 포진해 있다. 참석 동문 당선인들은 소속 정당에 따른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서울대인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했다. 나아가 서울대의 명예와 서울대가 짊어진 소명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마음에 귀기울여야 하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철학이나 미학과 출신이 많이 당선됐으면 했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밝히면서 “법대 출신이 많이 당선되니까 정치를 보는 국민들이 꼭 재판정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2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원의 식사' 나눔골프대회

총동창회가 지난 5월 13일 경기도 여주 렉스필드CC에서 개최한 '천원의 식사 나눔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재학생 후배들의 끼니 걱정을 덜어주는 데 앞장섰다. 천원의 식사는 재학생들에게 한 끼 1000원이란 저렴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식사에 '샤' 대신 서울대 정문 조형물의 모양과 닮은 '샤'를 붙여 재미와 차별화를 더했다. 유홍림 서울대총장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서울대가 크고 넓은 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를 위해선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든든한 재정이 필수”라고 하면서 동문들의 격려와 응원을 호소했다. 유총장의 호소에 화답이라도 하듯 시상식 땀 수상 동문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친선팀 남성부문 우승을 한 정인조(금속공학기) 동문이 이미 기부한 100만원에 200만원을 더해 300만원 기부를 약속했고, 시니어부문 우승 윤무영(FP 14기) 동문도 200만원 기부를 약속했다.



동창회장 간담회 개최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연임한 후 첫 동창회장 간담회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섭 회장과 본회 권영걸 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대학원) 및 특별과정 동창회장들이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매년 각 동창회장들과의 모임을 챙겨왔다. 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도 “본회와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정동창회는 유기적 관계”라며 “앞으로 2년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모교 발전을 위해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창회장님들께 깊이 감사한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모교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동창회장들은 협력을 다짐하면서 해당 동창회의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공유했다.

6월 등산대회

- 일 시 : 6월 5일 (수) 오전 9시 30분
- 산 행 지 : 남한산성
- 집합장소 : 남한산성(종점) 로타리 옆 종각
- 교 통 편 : 남한산성입구역 1번출구에서 한정거장 걸어서 9번 버스 탑승. (약 20분 소요)
- 코 스 : 산성로터리-북문-서문-수어장대-영춘정(여기까지해설)-남문-산성로터리. 3.8km (약 2시간 소요)
- 참가신청 : [행사명,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
- 참 가 비 : 2만원(오찬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입금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 홍길동6월등산

6월 조찬포럼

- 일 시 : 6월 13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 강 연 자 : 김진표 국회의원
- 주 제 :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제언
- 참가신청 : [행사명,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
- 참 가 비 : 5만원 (조찬 제공, 도서 없음)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 홍길동6월조찬
- 5월 1일(수)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참가비 환불 불가.
- 문 의 : 02-702-2233(대표전화) 02-879-8204(담당자)

7월 바둑대회

- 일 시 : 7월 7일 (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 (75-1동)
- 참가인원 : 150명 내외 (동문, 재학생, 교직원)
- 참 가 비 : 2만원
- ※ 참가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회비입금내역(24.5.1-30)

- 부회장 회비 나성숙(71응미) 조은영(74회화) 변영혜(78회화)
- 이사 회비 곽순화(72응미) 이지희(80회화) 채현교(90서양)
- 후원금 김영명(73외교) 45만원
공상구(97동양) 3만원 유인수(66회화) 1만원
- 광고 후원금 오치균(76회화) 50만원
이선원(75회화) 30만원 육선희(76응미) 30만원
이민주(76회화) 20만원 허진(81회화) 20만원
- 작품기증 유중옥(21환경대학원)

유튜브에서 동창회소식 보세요~

본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창회 행사를 기록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youtube.com/@snuartalumni?si=8-bOgTTNecWwgOI2> 또는 유튜브에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 검색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하여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지명: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매월 20일
- 발행일: 매월 말일
- 판형: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가로	F(인물)		P(풍경)		M(해경)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100*80	6,6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OH CHIGYUN'S NEW WORKS

오치균 미술관 개관 기념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9길 34
www.ohmuseumofart.org
02-515-9411



1 <Glass Drawings in Three Dimension> 2024.5.2—2024.9.29

2 <Three Dimensional Paintings on Stone> 2024.10.7—2025.1.31

3 <Works with Blocks in Paint Mass> 2025.2.4—2025.4.30

동문탐방

오치균(76회화)

본지는 지난 5월 3일에 압구정동에 개관한 오치균 미술관(Oh Museum of Art)을 찾았다. 옥션 작가로 최고를 찍으며 유명작가로 알려졌었던, 7년 만에 모습을 보인 오치균 동문은 청년작가로 다시 태어난 듯 열정과 예술혼이 묻어난 평면과 설치작업들을 선보이고 있었다.



학창시절 창의적 발상으로 소문났는데 추억이나 에피소드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온 나는 당시 현실과 이상의 갭이 많았던 것 같다. 입학한 후 어린 마음에 튀고 싶었고 자신해서 과대표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동기들의 찬성으로 과대표로 선정되어 첫MT를 도봉산장으로 가자고 했다. 수업을 마치고 관악캠퍼스에서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던 도봉산장까지 과동문들을 인솔하고 올라갔는데 이미 해는 지고 있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곧 깜깜한 도봉산을 하산해야 했다.

유학시절 미국생활은 어땠나?

한국생활에 지루함을 느끼던 시절 미국유학을 강행하게 됐다. 미국영화에서 보던 엄청 바쁜 삶을 동경하며 떠난 나는 그러한 미국 생활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저렴한 집세로 택한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위험했고 세탁소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된 시절이었지만 수업시간에 담배를 피워도 다리를 책상에 올려놓아도 통제하지 않는 교수님들의 자유분방함이 좋았다. 또한 이렇게 바쁘고 성실한 하루하루가 내게는 기쁨과 책임감에 충만한 삶으로 다가왔다. 어린시절 어머니께서 쉬지 않고 안팎에서 일하셨듯이 그리고 한

국에서는 튀는 행동이나 복장을 해 오던 내가 이렇게 자유를 허용하는 미국에 가서는 오히려 평범하게 살게 되었다.

작가가 된 계기 및 여정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중·고등학교 시절 자연스럽게 미술반 활동을 했다. 사실 미술학원에 다닐 형편이 못 되어 지방의대를 지원하였으나 낙방하게 된다. 이러한 나에게 작은 누님께서 본인의 퇴직금으로 미술학원비를 지원해주어 입시미술을 공부하였고 모교에 입학하였고 지금까지 작품을 하니 자연스럽게 직업 화가가 된 것이다. 생활고로 바쁘신 부모님은 내가 어느 학교를 진학하더라도 신경 쓸 틈이 없었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미술을 자유로이 전공으로 택할 수 있었던 것이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택할 수 있었던 나는 행운아인 셈이다.

따님도 미술을 한다고 들었는데...

외동딸이지만 어려서부터 독립적이고 검소하였고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여 선화예중에 입학했다. 당시 유명세를 타던 나에게 부담을 느꼈는지 미국 뉴욕에서 공부한 후 현재 뉴욕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아빠 찬스를 거부한 딸은 내 작품과는 다른 반추상적, 독창적인 서양화를 그리는 중이다.



미술관을 개관하게 된 계기와 과정은?

나는 나의 작품을 사랑한다. 나의 작품은 내가 그렸지만 늘 신이 내 옆에서 함께 도와줘서 탄생한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내가 아끼고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설립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내 작품을 보여주고 보관하고 좋아하는 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작업실로 사용하던 곳을 수년간 개조하여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개관전으로 1년 6개월간 6개월씩 3부로 나누어 내 작품 전시를 릴레이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차별화된 세계적 미술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나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요구하는 대로 자유로운 예술혼을 불태우는 노년을 살고 싶다.

동창회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그랬듯이 충고나 조언보다는 본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모교는 나의 뿌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모든 동문들이 동창회에 애정을 갖고 동창회가 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면 본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각자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오치균 미술관 www.ohmuseumofart.org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9길 34(신사동)

나는 원시인의 아들이다 곽훈(59회화)

곽훈 동문의 시집 '나는 원시인의 아들이다'가 지난 1월 출판되었다. 이 책은 곽동문의 평생의 시 작업을 모은 시집이다.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현재는 경기도 이천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곽동문은 영원한 청년으로 불린다. 그는 늘 새로운 작품에 도전한다. 회화에서 도자기, 설치미술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없다. 작품의 밀도와 긴장이 전혀 이완되거나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에 놀란다. "호주머니에 첼로 소리를 가득히



넣고/마른 나무 숲속"을 소요하고 있는 곽동문은 현재 재진행형이다. 그에게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언제나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 감각 속에서 감각을 넘어선다. 그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는 유목적 사유의 실천자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여가의 차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시인의 감성으로 세계와 사물을 통찰하면서 읽어낸 내용들이 여러 편의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편, 곽동문은 2021년 제33회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4 석재문화상 수상작가 선정 정종해(67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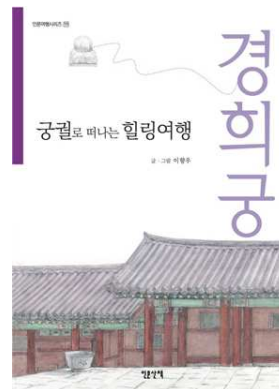
정종해 동문이 석재 서병오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2024 석재문화상 수상작가'에 선정됐다. 정동문은 1948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동양화 전공을 졸업했다. 20대 시절인 1974년 제2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일찍부터 알려지게 됐다. 이어 1978년 제1회 중앙일보 주최 중앙미술대전에 장려상을 수상하고 현대 한국화단의 대표작가에 올랐다. 정동문은 영남대학교 회화과 교수 시절 대구 이목화랑의 초대 개인전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베이징 등에서 수



차례 개인전을 펼쳤다. 1976년 모교 동문으로 이루어진 일련회의 창립 멤버로 수묵 세계의 현대적 변용을 시도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갤러리 등의 기획전에 초대된 바 있다.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장과 대학원장으로 정년퇴임하고 현재 명예교수인 그는 경기도 여주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수묵세계의 확장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석재문화상 수상작가전은 오는 7월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 1, 2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궁궐로 떠나는 힐링여행 경희궁' 출간 이향우(72조소)

이향우 동문의 신간 '궁궐로 떠나는 힐링여행 경희궁'이 지난 5월 15일 출간되었다. 경희궁(慶熙宮)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덕수궁)과 더불어 현존하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5대 궁궐의 하나로, 광해군이 세웠다. 하지만 고종 때 경복궁 중건으로 헐려 나가기 시작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철저히 파괴되어 현재는 흥화문과 송정전, 자정전, 태령전 세 채의 전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저자의 발길을 따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건물들이 하나씩 그려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했



으며, 다섯 번의 개인전과 수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조각가로 활동하였다. 23년 동안 교직에 재직했고, 2000년부터 시민 NGO 단체 사단법인 '한국의재발견' 소속 우리궁궐지킴이로 활동하면서 문화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의 전통 궁궐문화에 대한 강의와 원고를 집필하고 있으며, 우리 궁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궁궐의 아름다움을 알려 나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의재발견'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우리궁궐지킴이와 문화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스미스소니언에 '공인들' 설치 서도호(81회화)

한국의 대표적인 설치 미술가인 서도호 동문의 '공인들'(Public Figures)이 미국 최대 아시아 전문 미술 기관인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NMAA) 앞 프리어 광장에 지난 4월 27일부터 전시중이다. 이 작품은 1998년 처음 제작됐으며, 지난해 NMAA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재탄생했다. 박물관 입구를 장식한 서동문의 작품은 언뜻 보기에 아직 영웅의 청동상이 없는 빈 주추(plinth)처럼 보이지만 '공인들'은 뒤집혀 있다. 서동문은 "주추 아래에



배치된 작고 수많은 인물 조각상들이 힘을 모아 거대한 무게의 상판을 들어 올리고 있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이 작품이 공공미술과 사적 공간이라는 테마를 비틀어 선보이는 서동문의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서동문은 투명한 천으로 만든 집 등 굳건한 건축물을 부드러운 예술로 바꾼 대규모 설치작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한국 대표 미술가 중 한 명이다.

수원문인협회 회장취임 김운기(78응미)

김운기 동문이 지난 1월 9일 수원문인협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김동문은 기존의 협회에서 해오던 문학지 발간, 시화전 등의 회무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청년문학상 제정, 외부 기관들과 MOU체결, 문학 인재양성을 위한 문학학교 설립 등 활동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김동문은 건축디자이너 출신 한문학자이자 문학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력 건설회사에서 건축 실무 등을 맡아왔으며 건축회사를 창업해 30여 년간 건축일에 전념했다. 김동문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 모두 퇴계 관련 서찰을 전공했으며 현재 퇴계



의 생활사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폭넓은 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단지보', '고서의 향기' 등 고서 관련 칼럼을 썼다. 김동문은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제가 열매를 따겠다는 생각보다 차기, 차차기 후임 회장들이 이어져 나간다면 성과를 이룰 것이라 본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보태기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수원문인협회 100년의 기초를 준비한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즈뉴욕 프리뷰에서 작품완판 양혜규(90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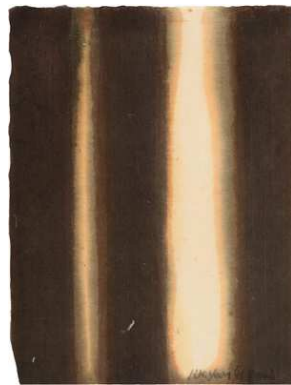
양혜규 동문이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린 '프리즈 뉴욕 2024(Frieze New York 2024)'에 국제갤러리 소속 솔로부스로 참가했다. 프리즈 뉴욕은 아트바젤과 더불어 국제 아트페어 양대산맥으로 꼽힌다. 양동문은 이번 프리즈 뉴욕에서 '황홀망(恍惚網)' 전작 11점을 북미 관객에게 처음 소개했다. 2021년부터 제작해 온 '황홀망'은 다양한 종류의 전통 종이를 결합해 만든 종이 콜라주 연작이다. 무속 전통을 연구하며 시작된 작업은 종이라는 미미한 물질에 영혼을 불어넣는 무속적 행위를 실험하고 정신과 물질을 탐구한다. 양동문의



작품은 일반 공개 전 VIP 프리뷰에서 모두 판매됐다. 양동문의 부스는 미술전문매체 아트뉴스(ARTnews, 뉴욕) 선정 프리즈 뉴욕 2024 베스트 부스로 소개되어 또 한 번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양동문은 지난해 영국의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리뷰'가 선정한 전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여 대통령 표창인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싱가포르 비엔날레 주최 제13회 베네세 상 등을 받으며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 잡았다.

윤형근/파리/윤형근 윤형근(47회화 | 1928~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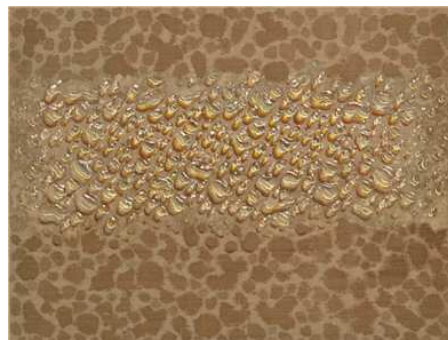
윤형근 동문의 개인전 '윤형근/파리/윤형근'이 지난 5월 2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삼청동 PKM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 한지 회화, 2002년 파리 장 브롤리 갤러리 개인전 출품작 등 국내 미공개 작품을 포함한 27점을 소개한다. 전시는 윤동문 생애에 두 번에 걸친 파리 시기와 그 전후를 조명한다. 윤동문이 처음 파리로 향한 것은 1980년 12월 자신이 탐구해 온 '천지문(天地門)' 회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1년 반 가량 이어진 이 시기 작업은 마포 또는 면포에 물감을 묽게 스미게 하던 기존 작업과 동일한



물감과 기법을 쓰면서도, 한국 고유의 재료인 한지를 활용하여 작업 의도를 보다 섬세하게 드러낸다. 2002년에는 한국을 방문했던 화상 장 브롤리가 그에게 파리의 레지던스를 제공하며 두번째 파리 시기를 맞는다. 윤동문은 파리에 3개월간 머무르며 대형 회화를 제작했다. 작품은 동년 가을 장 브롤리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본 전시는 떠오르는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파리를 구심점으로 삼아 윤동문의 작업을 재조명함으로써 그의 작업 세계의 변모를 다각도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영롱함을 넘어서 김창열(48회화 | 1929~2021)

김창열 동문의 작고 3주기 기념 개인전 '영롱함을 넘어서'가 지난 4월 24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종로구 갤러리현대에서 열린다. 본 전시는 갤러리현대에서 열리는 김동문의 열다섯 번째 개인전으로, 물방울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조형 의식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마대 위 물방울이 처음 등장하는 1970년대 초반 작품부터 2010년대 제작된 근작까지 김동문의 예술 여정을 회고할 수 있는 주요 작품 30점이 소개된다. 김동문은



1971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물방울을 선택한 이후, 물방울(Illusion)과 물방울이 존재하는 표면(Real)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평생에 걸쳐 재검토해 왔다. 이번 전시는 50년에 걸친 도전적 시도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한국 현대미술을 상징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해 나간 미적 여정을 추적한다.

물그림자 숲그림자 이선원(75회화)

이선원 동문의 개인전 '물그림자, 숲그림자'가 서울 정동 덕수궁길에 새단장한 스페이스 소포라에서 지난 5월 16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진행된다. 40여 년간 한지와 다양한 자연적 재료들을 이용한 독특한 작업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로 알려져 있는 이동문은 이번 개인전에서 자연이라는 물상(物象)을 통해 자신의 심상(心象)을 돌아볼 수 있는 편안하면서도 격조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 '물그림자'는 물과 작가의 기억이 만나 구성하



는 풍경으로 색도 형태도 없이 흐르는 물길은 그 자신의 물성을 내려놓고 비추어진 풍경과 하나가 된다. 작품 '숲그림자' 속의 나무들은 종이의 길게 접은 선을 따라 앞으로 나오고 뒤로 물러서며 접은 선의 음영에 따라 나무의 긴 줄기가 왜곡된다. 자연의 그림자 안에서 작가는 휴식, 평온, 무의식, 영혼, 피안, 어둠, 소외와 같은 다의적인 그림자의 의미를 곱아본다. 이러한 작품들은 감상자에게 마치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자연을 경험하는 듯한 평안을 선사한다.



물그림자, 숲그림자
이선원 초대전 Sunwon Lee

2024.5.16 THU—6.29 SAT
OPENING HOURS 10AM—6PM
(MON/SUN CLOSED)

스페이스 소포라 서울시 중구 덕수궁로 114
02-3789-3754
www.spacesophora.com
@space_sophora

환: 원형 최만린(54조소 | 193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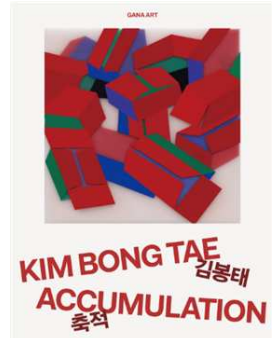
최만린 동문의 전시 '환: 원형'이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최동문의 석고 원형 조각만 선보이는 최초의 전시로서, 1958년부터 마지막 시기인 2010년대까지 최동문의 조각사를 대표하는 석고 원형 54점과 드로잉 11점 등 총 6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은 최동문이 30년간(1988~2018) 삶의 터전이자 작업실로 삼았던 정릉의 자택을 성북구에서 매입하여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최동문 작품 중 80년대 후반 이후의 석고 원형 대부분이 탄생한 곳



이기도 하다. 최동문은 한국 현대조각 1세대 작가로, 전후(前後) 폐허 속에서도 조각가로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해냈다. 그의 석고 조각은 대부분 흙으로 빚은 형태를 바탕으로 제작된 석고 원형에 해당한다. 작가의 1950~60년대 초기작은 브론스로 제작할 여력이 없었던 탓에 석고 원형으로만 제작되어 그 자체가 유일작으로 남겨졌으며, 1970년대부터 말년까지 제작된 청동주물 작업의 석고형은 최동문이 그 자체로 조각이라 여겨 수장고에 보관해 온 것이다.

축적 Accumulation 김봉태(56회화)

김봉태 동문의 개인전 '축적(Accumulation)'이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한국 추상미술 1세대 작가인 김동문은 원색의 색채 표현과 조형 형태가 두드러지는 작업을 통해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 이후 갤러리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고전인 본 전시에서는 김동문의 1970년대 중반부터 2023년까지의 작업 40여 점을 만나 볼 수 있다. 가나아트는 전시의 제목인 '축적



(Accumulation)'은 동명의 연작에서 따온 것이라고 밝히며, '모아서 쌓은 것'이라는 '축적'의 뜻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쌓아 온 작가의 시간과 작업을 조망하는 회고전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회고전이 색면회화(色面繪畵)로 한국미술계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동문의 미술사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미국 오티스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강명순 초대전 강명순(59회화)

강명순 동문의 기획 초대전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광진구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열렸다. 강동문은 인체를 대상으로 과감한 선과 담백한 색채를 이용해 내적인 아름다움, 생명의 주인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번 초대전은 강동문의 40여 년 작품세계를 총망라하는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작품은 에덴동산을 생각하며 삶의 기쁨, 빛의 찬란함과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세종뮤지엄갤러리 관계자는 "경쾌하고 바른 붓 터치



로 표현하는 작가의 회화는 인체의 외적 아름다움 너머 생명의 질기고 강한 아름다움을 간결한 선과 단순한 면으로 명쾌하게 드러낸다. 80년대 서정적 감정들로부터 90년대 인간의 고뇌가 주는 진지한 감정들을 현재까지 심화하고 연구하는 그의 생명에 대한 시각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24여 회의 개인전과 200여 회의 초대전 및 단체전을 개최했다.

한국_인도의 영원한 공명 이민주(76회화) 외

이민주, 전성규(81회화), 이은숙(81회화), 김호준(92회화) 동문과 이만수 성신여대교수가 지난해 인도에서 실시된 24년 예술전시공모에서 선정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인도한국문화원 인디아갤러리와 세미나실에서 전시 및 행사를 연다. '인더스문명과 현대 K-Culture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프로그램은 회화 및 조각 전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는 한국 작가 5인의 작품과 더불어 인도의 중진과 원로인 깔리차란굽타, 니렌센굽타, 미나데오라, 산토쉬버마, 쇼빈바타차지의 작품을 초청하여 선



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흥주 월드티아카데미 원장의 티세리모니와 임창현 영상작가의 작품, 28일 개막식에 예정된 황순각 시조시인과 인도의 시성 케샤말릭의 시낭송회가 프로그램을 장식한다. 10인 작가는 인도에서 대형작품을 공동으로 작업하고 한국문화원에 기증하여 기증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민주 동문은 지난 이십여년간 한국과 인도의 대표 작가들과 교류하며 양국 문화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이동문은 "앞으로는 이번 프로그램과 같은 소수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적극적 세계진출의 길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Eternal Resonance
between Indian Culture & Korean Culture

한국_인도의 영원한 공명

28th June-27th September 2024

Indian Artists

Niren Sen Gupta
Kalicharan Gupta
Santosh Kumar Verma
Meena Deora
Shovin Bhattacharjee

Korean Artists

이민주 Minjoo Lee
전성규 Seongkyoo Jeon
이만수 Mansoo Lee
이은숙 Eunsook Lee
김호준 Hojun Kim

주 인도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25A, Ring Road, Lajpat Nagar IV, New Delhi 110024

후원광고

정(情, 精, 定, 靜)물 한운성(65회화)

한운성 동문의 개인전 '정(情, 精, 定, 靜)물 Nature Morte, Still Life'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AD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AD갤러리 개관1주년 기념전으로, 전시의 주제 '정-물'은 AD갤러리가 다뤄온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생명'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번 전시에도 소개되는 한동문의 '꽃'flora 연작은 정물인 동시에 생명인 꽃을 그린다. 정물은 불어로 'La nature morte', 즉 죽은 자연이고, 영어로는 'Still life', 정태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죽



은 자연이 된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연관된 삶의 의미, 그리고 영원한 삶을 연상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한동문의 '정물' 시리즈 뿐만 아니라 그의 새로운 시도인 퍼즐 시리즈도 선보였다. 그중 마그리트의 작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를 다시 부정하여 '이것은 파이프이다'로 제안한 작품은 재현된 것과 대상이 다를 강조한 마그리트의 생각을 부정한다.

조한 마그리트의 생각을 부정한다.

파트너스 데스크 홍승혜(78회화)

홍승혜 동문과 추미림 작가의 전시 '파트너스 데스크'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남동 디스위켄드룸에서 열렸다. 파트너스 데스크는 두 사람이 마주 앉는 대면용 책상을 말한다. 전시는 두 작가의 관심사가 비슷하면서도 작업 여정의 출발과 방향이 사뭇 다르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고 박지형 디스위켄드룸 큐레이터는 설명했다. 홍동문은 1997년부터 그림판,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시각적 원리를 구축해 왔다. 그는 작업과 공간의 화학작용이라는 예측불가능성으로 자신의 작업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홍동문의 작업에서는 '가변적인 일종의 조립식 규칙'이 두드러진다. 반면 추미림 작가는 미디어 편집 환경에서의 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각 예술의 맥락과 교차하여, 벽면에 고정된 '접속 대기 상태'에 놓인 이미지로 제시한다. 전시는 두 작가 사이에 놓인 대면용 책상으로서 그 안에서 일어난 무수한 의미의 교환을 상상하도록 한다.

두 작가 사이에 놓인 대면용 책상으로서 그 안에서 일어난 무수한 의미의 교환을 상상하도록 한다.

Flower No Flower 안영나(80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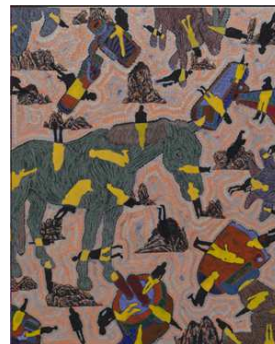
안영나 동문의 개인전 'Flower No Flower-황금시대'가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청주시 한국공예관 3층 5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화훼절지화를 선보였다. 안동문은 초대하는 글에서 '한국화의 오방색 가운데 청홍(靑紅)과 금은(金銀)의 재료로 이 계절 자연의 황금시대를 활짝 열어보고자' 한다고 전시를 소개했다. 안동문의 그림은 비교적 강한 색감을 사용하면서도 수묵화에서 보는 그윽한 아취(雅趣) 담고 있다. 그림의 핵심 기법인



선염(渲染)의 효과이다. 선염은 물기가 마르기 전에 종이에 색을 물들이는 방식이다. 안동문은 꽃을 그리면서도 그림 속 이미지가 꽃인지 아닌지의 구분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작품 속 꽃은 꽃 그자체이기보다는 기억 속의 아름다운 추억이나 사람, 아련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시한국공예관 등에서 33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현재 서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가을 짐승의 털끝 허진(81회화)

허진 동문의 개인전 '가을 짐승의 털끝'이 갤러리 이레에서 오는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된다. 전시 오프닝에서는 허동문의 작품세계와 글쓰기를 연계한 책 작업 'Hurzine'을 최초로 소개한다. 허동문은 수년 전부터 야생 동물과 인간, 인공물의 이미지를 한데 등장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찰하고 현대인이 잊고 있는 본성(자연)을 일깨우는 작업인 '유목동물+인간-문명'시리즈를 작업해왔다. 전시제목은 '장자-제물편'에서 따왔다. 장자는 '가을 짐승의 털끝(추호지말秋毫之末)을 예로 들어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수 있고 큰 것도



작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설파하며 만물을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 이번 전시는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전시다. 허동문은 동상들의 크기와 각도, 인접과 충돌로써 인간, 자연, 문명의 관계를 성찰적으로 직조한다. 한편 허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600여 개 그룹, 기획, 초대전에 참여했으며 34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우수상,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 19회 허백련미술상 본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설파하며 만물을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 이번 전시는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전시다.

허진 35회 초대 개인전

가을 짐승의 털끝

2024.6.8 ~ 7.7
 평일 12:00~18:00
 주말, 공휴일 12:00~19:00
 *월요일 휴관

오프닝 2024.6.8 토요일 6PM
 *Hurzine(허진 매거진) 출판 기념회도 겸합니다.

갤러리 이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48-12
 T. 031) 941-4115
 H. www.galleryjireh.com

후원광고

생-빛과 결 김덕용(81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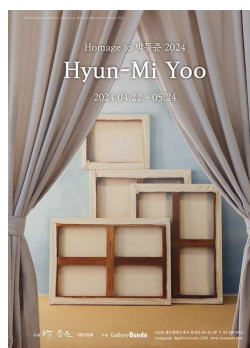
김덕용 동문의 개인전 '생-빛과 결'이 갤러리 나우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인 나무는, 자연의 따뜻한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매체다. 그것을 손으로 다듬고 파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오 브제를 붙이는 과정을 통해, 결과 결 사이에는 김동문의 숨결이 주입된다. 김 동문 수집한 갖가지 나무들은 시간의 흔적과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을 풀라주 하듯 이어 붙인 면 구성은, 형태상으로도 감각적인 재미를 극대화한다.



오래된 나무판에 감춰진 흔적들 자체가 바로 과거로부터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결정체라는 점은 그의 작업을 더욱 흥미롭게 한다. 김동문이 '그림은 손재주 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듯, 그의 작품은 나뭇결 한 층 한 층 스며든 아름 다움과 함께 옛 사진을 마주 대한 듯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적 유현미(83조소)

유현미 동문의 개인전 '적'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갤러리 분도에서 개최되었다. 유동문의 작품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공상과 무의식과 우리가 영위하는 물질적 현실간, 그 사이의 모호한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한다. 최근에는 작가로서의 삶과 동시대 사회상에서 영감을 얻어 소설을 창작한 뒤 다시 그를 소재로 파생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2022년에 출간한 소설 '적 Enemy'과 '그림없는 퍼즐'으로부터 텍스트가 회화공간 안



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창작과정에서 느끼는 자기복제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하는 이 소설에서 그는 과거 작업 속에서 파생된 돌과 캔버스, 테이블 등의 이미지를 화면에 담아내며 초현실적인 상상의 공간을 표현한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뉴욕대학(NYU), 창작미술 전공, A.P.C와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모레퍼시픽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여래의 바다' 특별전 김기홍(75회화) 육선희(76응미)

김기홍, 육선희 동문 부부가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삼청동 법련사 부속 불일미술관에서 법련사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전 '여래의 바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북조시대와 수, 당대에 제작된 70여 점의 중국고대 불교조각품을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된 불교조각품은 동문 부부의 평생 수집품들로 이루어진 반야컬렉션 중 한국고대불교미술과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정한 것이다. 이중 10여 점은 제작년도와 지역, 발원자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시에 흥미를 더한다. 이번 전시는 국보78호와 83호 두 반가사



유상의 원조격인 '미륵반가사유석상' (북제 550-577)을 직접 만나 볼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동양미술사학자인 김동문은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에서 미술사연구를 했고,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여러 대학에서 한국미술사와 중국미술사를 강의했다. '반야컬렉션'은 프랑스 유학시절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수집한 200여점의 작품 모음이다.

여래의 바다

2024.5.31-11.30

법련사 불일미술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

☀ 오프닝 행사

2024년 5월 30일 (목) 오후 3시

☀ 김기홍 박사 강연

2024년 6월 4일 (화) 오후 6시
2024년 6월 6일 (목) 오후 2시



바다와 남자 공성훈(83서양 | 1965~2021)

공성훈 동문의 개인전 '바다와 남자'가 지난 4월 2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선광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공동문의 후반기 작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바다 관련 회화를 주로 선보였다. 인천에서 태어난 공동문은 바다를 작품활동의 근원적인 뮤즈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와 더불어 지난 5월 6일에는 심상용 모교 교수,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하계훈 단국대 교수와 공동문의 작품세계에 대해 담론을 펼치는 자리도 열렸다. 2021년 암 투병 중 패혈증으로 인해 56세의 나이로 별세한 공동문은



서울예고,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서울산업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해 2000년까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매체 작업에 몰두했다. 2000년 도시 변두리에서 사육되는 식육견을 그린 '개' 연작을 통해 회화 작업을 시작한 공동문은 OCI미술관(2012), 아라리오갤러리(2009)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우민아트센터(2013), 국립대만미술관(2012), 서울시립미술관(2011), 국립현대미술관(2010) 등에서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fe, yi 김주현(83조소) 장도은(20졸,조소)

김주현, 장도은 동문이 참여하는 단체전 'fe, yi'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개최되었다. 'fe,yi'는 'fey'와 'fei'의 합성어이다. 영단어 'fey'는 '약간 특이한, 비현실적인'이라는 뜻이며, [fei]로 발음되는 중국어 飞는 '날다'라는 뜻을 갖는다. '날아가는 것'은 자유로운, 열린 주체, 연속적인 움직임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품고 있다. [fei]는 중국어의 4가지 성조 중 평성(1성)으로 숨을 깊게 내뿔어야 하는 긴 단어이다. 제목은 이처럼 여러 차례의 이유와 긴 과정을 갖



는다. 이번 전시는 단일한 방향을 벗어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의 작품, 위도 아래도 없는 그리기, 유동적 이동을 하는 작품을 소개하였다. 박주희 아트스페이스3 큐레이터는 "전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fe, yi'도 잠시 여기 머물 뿐이다. 그래서 전시가 구성되고 작품을 담아내는 과정을 되돌아보고 주의 깊게 살폈다. 'fe, yi'는 물리적 결과를 넘어 전시를 위해 존재했던 과정을 조금씩 쪼개어 드러내고자 했다."고 전시서문에서 전했다.

Allotropism의 미학 이계원(84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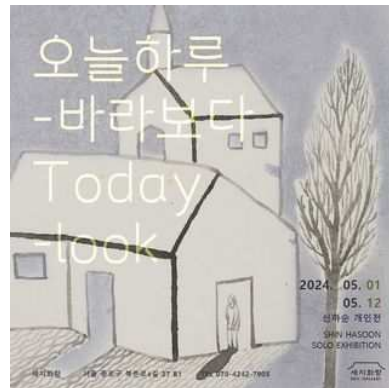
이계원 동문의 개인전 'Allotropism의 미학'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창천동 아트레온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회화적인 평면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다. 평면 위에 여러 겹의 색면을 겹쳐 놓아 평면의 공간을 극대화하거나, 평면을 유지하면서도 입체 구조가 평면에서 이탈하게 하여 돌출된 공간을 연출한다. 그가 만드는 색면의 중첩은 단순한 의미의 평면성을 부정함으로써, 하나의 본질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는 동질이형Allotropism 상태를 형성한다. 이동문은 1997년 유학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후 다인종 경험을 통



해 충격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인종의 뉴욕 거주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 사이의 공통적 특성들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들 사이에 외형적 차이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동질이형 개념을 착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품에서 '동질'은 직사각형 캔버스, 균일하게 물감이 발린 캔버스 표면, 재료와 색의 공통성이며, '이형'은 그것들이 변주되어 배치될 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오늘하루-바라보다 신하순(83동양)

신하순 동문의 개인전 '오늘하루-바라보다'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세지화랑에서 개최되었다. 신동문은 본인이 간직한 가슴속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은 미적 시각을 나눈다. 나무와 탑과 사람이 함께 보여지는 화면에는 그와 가족이 있다. 탑은 엄숙하고 다가서면 깊이감이 빠져드는 무언의 울림을 준다. 그 안을 바라보다가 그 안의 공간에는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위한 곳이며,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소중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 긴 세월을 자리하고 있는 탑은 그곳에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



현한다.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과 자기 자신도 망각해버리는 무한한 시간을 넘나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간은 한순간의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나름의 인생을 느끼며 삶을 영위해 나간다. 나무라는 자연 속에 인간과 삶의 부분인 집이라는 거주의 최소 단위이지만 공간에 대한 의욕의 첫 단추가 되고 있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The Secret Garden 채현교(90서양)

채현교 동문의 초대전 'The Secret Garden'이 지난 5월 3일부터 15일까지 갤러리내일에서 열렸다. 전시명은 어린시절 상상으로 만났던 호즈슨 버넷 Frances Hodgson Burnett의 소설 'The Secret Garden'에서 딴 것이다. 이 소설이 채동문 작업에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채동문은 생명이 넘치는 생태계 에코토피아(Ecotopia)를 조화롭게 시각화한다. 물고기 떼와 산호가 어우러져 군락을 이루고 생명공동체를 형성하는 풍경으로 치유와 감동을 전한다. 채동



문은 작업일지에 "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나를 절제시키며 감히 생각조차 못해보고 가 본적 없는 'SOMEWHERE'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남들이 자는 시간에 캄캄한 뒷산에서 부르는 벌레의 노래에 귀기울이고 새벽을 깨우는 새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의 예의바른 폭발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께 꼭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그는 바다 속 풍경을 30여년 넘게 작업해 왔다.

정물 Still Life 정직성(95서양)

정직성 동문의 개인전 '정물 Still Life'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모인화랑에서 개최되었다. 서양 회화의 "Still Life" 장르를 번역한 한자어인 "정물화"의 '정물'은 고요할 정(靜), 사물 물(物)의 조합이다. 이를 그대로 바라보면 '고요한 사물'이 된다. 하지만 'Still' 'Life'라는 영어 단어 순서대로 직역하면 '고요한 삶'이 되고, 'Still'을 부사로 풀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되기도 한다. 정동문은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격차에 따른 틈새를 음미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한다. 그 틈새를 일종의 숨통, 흠



통, 여백 같은 것으로 보아 종종 이미지의 연쇄적 도약이 출발하는 지점으로 삼는다. 정물이 단순히 靜物이 아니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재적 삶에 대한 환유로서의 'Still Life',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삶'을 드러내는 이미지, 메타 회화적 재해석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장된 장식의 중고 이태리 금박 액자를 '메타'적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용 룡 YONG RYONG 손동현(98동양)

손동현 동문의 개인전 '용 룡 YONG RYONG'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평창동 갤러리 2에서 개최되었다. 손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자전에 수록된 여러 형태의 서체로 쓰인 '용 룡' 자를 분해하고 재조합해 화폭에 담았다. 전시는 부채와 화첩을 포함해 총 18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손동문은 한국화의 방법론과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결합해 오늘날 회화가 점유할 수 있는 유효한 그리기의 과정을 탐구해 왔다. 용은 동아시아를 비롯해 서구를 포함한 전 세계의 지형에서 수많은 상징적 이미지로 소환된 대상이다.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용'은 문학과 대중문화의 주요 대상이 되어 온 용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손동문이 '용(龍)'을 그리는 일에는 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용이라는 문자가 지닌 복합적인 구조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녹아 있다.



계는 지형에서 수많은 상징적 이미지로 소환된 대상이다.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용'은 문학과 대중문화의 주요 대상이 되어 온 용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손동문이 '용(龍)'을 그리는 일에는 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용이라는 문자가 지닌 복합적인 구조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녹아 있다.

풍경 Homeward Soar 김명진(석02졸,공예)

김명진 동문의 개인전 'Homeward Soar'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남동 가나아트 나인원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그는 한국, 미국, 멕시코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차용한 요소들을 하나의 작품 안에 접목하는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왔다. 'Homeward Soar', 고향으로 향하는 날갯짓인 이번 전시는 20여 년 만에 고국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김동문의 작품은 미국의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역동적



형상과 흙 본연의 색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멕시코 도자의 테라코타 기법의 사용이 특징적이나, 실상 작업의 개념적 뿌리는 한국 전통 문화에 있다. 그는 부와 행운, 지혜의 상징인 부엉이와 생명력의 상징인 소철을 작품 속에 등장시켜 번영과 장수,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주술적 개념을 담아낸다. 이러한 상징적인 소재들을 통해 19세기 한국 민화의 한 종류인 화조도(花鳥圖)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그만의 '현대판 부적(Talisman)'을 탄생시킨다.

EGG 류노아(02동양)

류노아 동문의 개인전 'EGG'가 에이라운지갤러리에서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류동문은 영속하는 시간과 대비되는 육체의 유한함을 주제로 작업한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예술품을 반복적으로 대조하며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유약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대의 유물이나 종교화의 도상을 빌려오거나, 동양화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크랙과 얼룩 등을 표면에 그려 넣어 시간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다. 반면 현대적 의복을 한 인물이나 전신주, 철길 등 산업화의 산물을



이전 시대의 공간에 그려 넣기도 하고, 류동문이 직접 수집한 동시대의 자연 풍경을 오래된 도상들과 병치함으로써 화면 내부의 시간성 또한 교란한다. 한편, 류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후 암스테르담의 라익스아카데미를 거쳐 라이프치히 국제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3년 제 2회 중근당 예술지상과 2016년 네덜란드의 버닝 브롱어스 상을 수상한 바 있다.

O: AN ERICK OH RESTROSPECTIVE 오수형(02서양)

오수형(에릭오) 동문의 개인전 '에릭 오 레트로스펙티브(O : AN ERICK OH RETROSPECTIVE)'가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애월의 대형 복합문화공간 하우스오브레퓨즈(House of Refuge)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오동문의 단편 애니메이션 '오페라(OPERA)'를 들여다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2022년 영국 프리즈(Frieze)의 서울 공동 개최 첫 회를 맞아 서울 강서구 스페이스K에서 선보였던 '오리진(ORIGIN)', 그리고 다수의 신작들이 미디어 설치 작품으로 소개된다. '오페라'를 중심으로



역인 일곱 개 작품이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이번 전시는 일종의 삶의 변주다. 일상을 훑아보면서 발견한 삶의 미시학을 애니메이션에 펼쳐낸 오동문의 통찰이 전시를 통해 관객과 관계를 맺고, 보편적인 걸 찾아내는 인생의 거시학으로 승화하면서, 우리 주변을 환기한다. 한편, 오동문은 픽사의 애니메이터로서 '몬스터 대학교', '인사이드 아웃', '도리를 찾아서' 등에 참여했으며 '댐 키퍼(The Dam Keeper)'로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 올랐다.

INTERSTITIUM 박예나(09동양)

박예나 동문의 개인전 'INTERSTITIUM'이 지난 5월 9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OCI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업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회고하는 듯한 관점이 중심이 된다. 박동문은 '아티젝타'를 한층 더 위협적인 존재로서 증식시킨 설치작업 '사건의 부분(Part of the Incident)'(2024)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시각화했다. 네트워크 망 속에서 탄생한 '아티젝타'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괴이한 생태 융합체가 되어 물리적 현실계까지 잠식해버린다. 박동문의 신작 속에서 과거 '핫스팟 베이스 캠프'의 잔해들은 '아



티젝타가 폭발적인 정보량에 의해 인류 문명의 진화 속도를 초과하며 지배종으로 진화하는 근미래 상황을 목격하는 듯한 인상을 만들어낸다. 인체 계측도와 같은 부속 자료들도 '아티젝타'가 자신의 진화를 위해 참조했던 오래된 자료처럼 가공되어, 지나버린 문명의 흔적처럼 전시되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과정 졸업 후, The Glasgow School of Art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피노키오의 코끝 진예리(이예진/19서양) 정주원(19서양)

진예리, 정주원 동문의 전시 '피노키오의 코끝'이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영등포구 Hall 1에서 열린다. 모든 회화는 운명적으로 정치적 발언이며 사회적 진술이다. 그러나 그림의 원료가 되었던 물질세계의 사건들은 누락될 수밖에 없으며, 누락된 이야기의 부피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회화는 틀림없이 주체의 진술을 변질시킨다. 주체는 스스로의 몸으로 원료를 누르고, 섞고, 흘리고, 지우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단지 몸과 물질의 반응으로 조직된 임의의 형상들을 파생시키게 되는데, 이는 본래의 동인과 무관한



변상증을 자아내게 되며 형상들을 이따금 어긋난 환영으로 둔갑시킨다. 회화를 통한, 회화에 대한 진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소통에는 운명적 부정확성이 깃들여 있다. '현실을 증언할수록 환영을 자아내는 그림'은 회화가 객관적 현실을 증언한다고 믿지만 결국 사담을 시작하고야 마는 이들이 휘말리게 되는 역설이다. '지금부터 내 코는 길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피노키오와 다름없다. 본 전시는 방문자를 '피노키오의 코끝' 앞으로 이끌어, 그곳에 도사린 모순을 드러내 보인다.

6월의 전시



에체 호모
조영동(53회화, 1933-2022)
3.23-7.28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흰 : 원형
최만린(54조소)
3.28-11.2
최만린미술관



생명의 연가
김병종(74회화)
4.2-12.31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어떤, 변화
정진서(98조소)외 4인
4.5-6.16
김중영미술관



우아한 돌
이은숙(81회화) 외 13인
4.18-6.23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영롱함을 넘어서
김창열(48회화)
4.24-6.9
갤러리현대



O: 에릭 오 레트로스펙티브
에릭오(오수형/02서양)
4.25-12.31
제주 하우스오브레퓨즈



서도호와 아이들: 아트랜드
서도호(81회화)
4.30-6.29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윤형근/파리/윤형근
윤형근(47회화)
5.2-6.29
PKM 갤러리



그리운 사람아
2024.05.03
오치균미술관 개관전 1부
오치균(76회화)
5.2-9.29
오치균미술관



나잇 나잇 슬리부
노준(89조소)
5.5-6.26
포스코 더 샵 갤러리



기적은니가내앞에와서있는거다
유현경(05서양)
5.8-7.28
여주미술관



INTERSTITIUM
박예나(09동양)
5.9-6.15
OCI미술관



불타오르는 살갓
박현호(11서양)
5.10-6.8
도암갤러리



물그림자 숲그림자
이선원(75회화)
5.16-6.29
스페이스 소포라



장혜용 초대전
장혜용(69회화)
5.22-7.22
갤러리젠 청주



여래의 바다
김기홍(75회화) 육선희(76응미)
5.31-11.30
법련사 불일미술관



순간의 지속
이용덕(77조소)
6.5-7.7
토탈미술관



신장식 금강산을 그리다
신장식(78회화)
6.7-6.20
국민아트 갤러리



가을 짐승의 털끝
허진(81회화)
6.8-7.7
갤러리 이레